

졸업논문

UR, WTO체제하에서의 본교를 포함한  
국내 대학들의 발전 방향에 관한 모색



1997년 11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김정민

## “ UR, WTO체제하에서의 본교를 포함한 국내대학들의 발전 방향에 관한 모색 ”

### I. 서언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아 교육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단순한 내국적 경쟁이 아니라 세계화된 경쟁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무국경 무한정 교육경쟁에 의존하는 교육 산업화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육 개방화를 맞이해 1998년 부터 본격적으로 외국 대학이 국내에 설립되어 교육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외국 대학은 분교 차원이 아닌,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 설립준칙에 따라 별도의 학교 법인이 설립되는 외국계 대학인 것이다.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교에만 허용된다지만 앞으로 많은 수의 국내 고교 졸업자들이 외국 대학으로 흡수 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력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비롯한 교육 개방이 이루어 지면 사교육비까지 포함하여 12조원의 교육 시장을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개방 시대의 대학들은 세기적 '제2의 교육 물결' 을 맞고 있는 셈이다.

교육 개방의 문제는 단일 국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범 세계적 경향이며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발전 수준에서 낙후되지 않고 국가 목표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생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미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국내의 대학 교수가 1년 동안 외국에 발표한 총논문편수가 미국의 일개 대학인 하버드, 일본의 동경대 교수의 논문편수 만도 못하며, 그것도 하버드대나 동경대 교수의 논문은 단지 3개 논문 학술지(cas,pa,sci)에 게재된 수치와 비교한 것이기에 국제 경쟁력이란 단어를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현실이다. 또한, 입학 점수에 의해 정해지는 대학의 서열도 좀 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대학 자체는 언제나 베일에 가려 있다. 재료(input)는 보이는 데 과정과 결과물(output)은 여전히 미궁속이다. 따라서 교육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 공급자의 입맛에 맞게 잘리고, 포장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 시대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배양과 존속의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21세기는 학생 소비자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 고객시대에 걸맞는 체제의 정비와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폐쇄 체제에서 열린 체제로 변화되어야 하고 내국적 관점에서 국제적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교육 시대에 걸 맞는 개방시대의 대학이 되어야 하며 자기 스스로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기 관리 체제를 갖춘 대학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은 이젠 백화점식 나열 대학인 종합대학(UNIVERSITY)로의 지향을 자제하고, 전문적이며 특성화를 추구하는 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기적 전환기인 21세기를 맞이해 학생소비자 시대와 개방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생존의 문턱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 II. UR, WTO 체제하의 교육 개방에 대한 고찰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 협상에 교육 서비스와 교육 기자재를 포괄하는 교육 개방의 사실과 함께 정부가 UR협상의 결과와 관계없이 교육 부문을 1996년 부터 부분 개방하고, 2000년까지는 완전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이후, 각 대학은 UR의 파고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의 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 대학도 대학중·장기발전연구 위원회, 21세기 발전 기획단 등을 출범시켜 대학 경쟁력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대학 학령 인구가 1996년 부터 감소하여 2002년 이후 고등교육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많은 대학들에게 UR 개방은 그야말로 생존의 시험 무대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고유의 전문영역을 지키기 보다는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여 거의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면모를 갖추어, 학과 편성이 모두 동질화 되고 획일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대학 규모와 학생 정원수 증원수 늘리기에 급급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1. 우루과이 라운드와 교육 시장의 개방

WTO체제에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완전 개방하게 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도 교육 기자재만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 자체도 상무 협상이나 교역 대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경우는 1993년의 UR 최종 개방계획서 작성시까지 교육 부문은 제외 하였으나 아시아 국가의 교육시장개방 추세를 외면할 수 없어 1995년 부터 기술계 학원 시장의 개방을 필두로 1996년부터 일반 학원(어학 및 예체능계)를, 고등교육부문(대학 이상)은 96년 이후에 개방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은 개방성에 기초한 국제화의 논리와 경쟁에 의해 국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하에 교육마저도 상품으로 취급하여 시장 경쟁의 장에 등장시킨데 있는데, 이처럼 외국의 교육 기관이 한국의 교육 시장에 매력을 갖는 이유는 높은 교육 열에 비하여 턱없이 열악한 교육 환경과, 교육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 있다. 그래서 외국의 교육 기관이 거대 자본과 우월한 교육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예측

하기란 어렵지 않다. 또한 자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등감으로 외국 학위를 선호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외국계 대학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뿌리내리기에는 조건이 좋을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의 일부 대학들은 이미 국내 교육 시장 조사팀을 파견하여, 1차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지나 건물 매입 등의 기초적인 준비를 끝냈거나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 대학들이 교육 시장 개방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외국의 우수 교육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내 교육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신기술, 첨단 기술 등의 국내 유입 등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국민의 학습권 신장과 교육 기회 다양화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대학의 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육여건 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므로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어려워지며, 또한 2000년대 초에 이르면 현재 국내 대학들도 정원을 다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대학 진학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면, 전반적인 발전이 위축되며, 일부 영세 대학 및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은 합병 및 폐교 등의 사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 외국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볼 때 그 진출 형태는 어떠한가?를 분석해 보면, 외국 대학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형태로는 첫째로, 대학 신설 또는 분교 형태로 내국인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진출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는 미국 대학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학 신설 또는 분교의 경우

- ① 국내 자본 또는 기존 국내 대학과 합작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② 국내 대학을 외국인이나 외국 교육 기관이 인수하여 외국대학으로 변경하거나 신설·운영하는 경우,
- ③ 외국 대학이 단독 자본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대학을 신설·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단독 신설의 경우나 인수의 경우는 국내 지가 수준과 시설비가 높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①의 경우처럼, 즉 국내 자본과의 합작 또는 국내 기존 대학과의 공동 설치 운영에 의한 진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의 단기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정규 대학을 설치하지 않고 단기 학위 과정이나 주말 프로그램, 계절 프로그램 운영하는 형태로서의 진출로서와 통신매체 등을 통한 원격 교육 형태로, 커리 컬럼과 학사 운영 방식만 제공하고 명칭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등이 대표적인 진출 형태로 꼽힌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시장 개방은 이제 임박하였으며, 또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대학 교육 수요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 시장 개방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2. 교육 개방화에 따른 국내 대학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U.R협상이 타결되고 교육 서비스 부분이 개방되면 상당수의 대학,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 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실이며, 더군다나 출산율의 저하와 진학 희망자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다.

여기저기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른 바 경쟁력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앞 다투어 나서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학교가 동시에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96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134개의 4년제 대학이 있으나, 문제는 이들 대학 모두가 모든 학과를 죄다 갖춘 종합 대학(UNIVERSITY)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종합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름 아닌 연구이다. 그럼 이들 한국의 university는 과연 연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마 연구가 아니라 몇몇 대학은 열악한 사정으로 수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에도 수 천개의 대학이 있다. 하지만 연구 중심의 진정한 종합 대학은 백 개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U.R시대, WTO체제에서 우리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구멍가게 멘탈리티를 버려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상품이 진열된 고급 백화점을 차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이 세계적인 명문 종합 대학 즉 고급 백화점이 되겠노라고 나서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모습은 초라한 구멍가게에 불과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한국 최고라는 서울대조차도 교수 1인당 학생수, 교수 1인당 연구비 등을 조사한 결과 선진국의 1/3-1/10수준이라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중심주의는 앞으로도 별로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 대학의 경우에는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 남으려면 이제 백화점식 대학을 청산하고, 지역 특성과 사정에 맞는 대학으로 발돋움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금광과 탄광이 많은 미국 콜로라도에는 광산 대학(School of mining)이 있고, 농업지대인 중서부에는 농과 대학과 통계학과가 발달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에 농과대학이 있는가 하면 소도시의 신설 대학에도 법학과와 영문학과는 필수 품목이다. 또한 요즘에는 첨단 분야가 아니면 증과와 증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학교마다 첨단 바람이 불고 있다. 여건이 양호하고 자신감과 의지가 뚜렷한 학교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겨루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크게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들의 바램일 뿐이다. 결국 대학 자체가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본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후죽순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고 이제는 경쟁력있는 학부 및 학과를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해양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교육 시장이 개방되는 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대학의 대

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자생력 강화, 질적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대학간 자유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이 강한 우수 대학은 자생적으로 발전·활성화되도록 하고 부실대학은 자체적으로 정리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몇 개 대학의 학과들에 적용하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제도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관리와 선별적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필요 또한 있다. 즉 우수 대학은 적극 지원·육성하여 정원 및 학생 선발 등에 제반 자율화 조치 등을 부여함으로써 선별적으로 지원·육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대학별로 특정 부문을 육성하는 특성화 대학을 운영하여 대학교육의 전반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부문별 전문성 함양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교수 및 시설 확보 등 국내 대학의 교육 여건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 교수 확보 및 시설·교육 기자재 확보 여건의 국제적 비교 열위를 최단시간 내에 극복,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획기적 투자 지원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 3. 대학개혁과 재정 확보

흔히 21세기는 '교육 경쟁의 사회'이며 국가간의 '교육 이동 사회'라고 지칭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밖에 없고 이 점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의 개혁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올바른 교육 의식 그리고 재정의 확보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재정과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국제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교육 재정의 확보는 또한 정부 예산에만 의존 할 수도 없는 과제인 것이다.

#### 1) 대학 개혁과 재정 확보의 필요성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 고등 교육을 실현 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GNP대비 5%의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 인구 비례에 따라 16%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 재정에만 의존 할 수 없는 경우 결코 질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시킬수 없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요구 되는 실정이다.

외국의 GNP대비 정부 예산은 30-50%로서 우리 나라의 15%에 비해 2-3배에 달하고 있어 정부 예산 중 교육 예산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높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교육 예산의 규모는 매우 영세한 형편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GNP대비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이 0.35%에 불과한 데 비해 외국의 경우 1-2.7%인 점을 감안 할 때 대학의 양적 규모와 사회적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매우 열악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교육비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만 보아도 9.4% 수준에 불과하여 대학 시설이 낙후되고 연구 여건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아래 참조)

주요국의 GNP 및 정부예산대비 고등교육예산 (단위 : %)

국 가 별	교육예산 비중		고등교육예산대비		GNP대비 정부예산 비 중
	GNP대비	정부예산대비	GNP대비	교육예산대비	
오스트리아(89)	5.66	12.52	1.11	19.4	45.2
일 본(88)	4.8	16.2	1.08	22.5	25.6
노르웨이(89)	6.88	13.52	1.02	15.2	50.9
스 위 스(89)	4.77	15.54	0.98	18.7	30.7
독 일(89)	4.00	9.55	0.94	21.5	41.9
영 국(89)	4.75	12.60	0.91	18.9	37.7
브 라 질(86)	4.6	17.7	0.81	17.6	26.0
스 웨 덴(89)	6.60	11.54	0.76	15.4	57.2
멕 시 코(89)	3.8	7.6	0.69	18.1	50.0
프 랑 스(89)	4.75	10.28	0.66	12.5	46.2
그 리 스(89)	2.64	5.52	0.62	19.5	47.8
한 국(93)	3.81	23.4	0.36	9.4	15.7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 Statistics on the Member Countries, July 1992.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91.

### 3) 대학 재정 확보 방안

대학 재정 확보 방안은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국민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 재정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교육 개혁안 중 후반기 과제인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보면 GNP대비 5%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김영삼 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공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63만원으로 일본의 629만원, 미국의 875만원, 독일의 552만원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교의 경우를 볼 때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국제 경쟁력 제고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교육 재정 소요를 획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GNP대비 정부 예산을 높이거나 정부 예산 중 교육 예산의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학연 협동으로 통해 비정부 기관과 산업체에서 교육 발전에 일조를 하게 하는 방법과 특히 경쟁력 있는 대학은 시설 설비나 지원 여건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우수 교수 인력을 확보하고 경험있는 교수 보조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중요한 영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4. 교육 개방에 따른 대학교육 개혁

교육 개방은 한국의 대학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UR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고 UR협정 최종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1948년 탄생이후 세계경제 무역질서를 지배해 온 GATT를 대체할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후, 특히 117개국에 의해 서명된 UR협정 최종 의정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개방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

에 우리 나라는 96년 부터 부분 개방 그리고 2000년까지는 완전 개방의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시장의 의미는 교육 서비스 시장과 교육 기자재 산업 시장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공·사립대학교와 사설 학원등의 모든 교육 기관이 개방 대상이다. 또한 교육기자재 산업 시장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기자재, 교재, 교육 방송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매체와 교육 중개(Educational brokering)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개방이 가져다 줄 교육의 파장은 내국적 파장고는 달리 세계를 교육의 시장으로 인식하는 '교육의 제2물결(educational wave)이 될 전망이다.

그럼 교육개방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 보자. 교육개방은 그 장·단점을 검토해 볼 때 명암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하며 교육 개방의 속도와 범위에 관한 기준과 '개방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개방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 경쟁력이 약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개방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지도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개방에 따른 대학 교육 개혁은 우선 대학 체제와 대학 체제면에서 대폭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로 이제까지는 대학이 학력인플레이 현상으로 인해 높은 교육 열이 지속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용이한 성장과 안일한 경영으로도 유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경영에 있어서 국제 경쟁적 경영 체제로 돌입할 필요가 있다. 국제 경쟁적 경영 체제는 공 대학 경영의 효율화를 의미하며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 경영의 전문화와 행정권한 분산에 의한 효율화,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화, 그리고 입학과 졸업의 자율화 등의 방법등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대학의 선발과 분배의 기능에 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에 선발과정과 분배의 역할을 유연성있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의 정원 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계열별 대학별로 정원을 유연성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 시켜야 한다. 즉 대학의 학사 운영체제를 대학생들을 소비자로 인식하는 소비자 학사 운영체제(client-centered management)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교수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커리큘럼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는 있을 수 없고, 우수 외국 대학들의 다양한 커리큘럼과의 대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고정된 커리큘럼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교수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개방이 될 경우 통신 매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임을 감안하여 통신 매체, 다중 매체 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로 대학 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 대학 재정의 취약성을 감안 할 때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설비나 교육 보조자료 그리고 인간자원의 측면에서는 단일 대학 독단으로 확보하려는 노력 보다는 '대학 풀(pool)제' 활용의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재정의 빈곤을 해소 시키지 않고서는 개방이 가져올 충격은 배제할 길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별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영역별 협력 체제에 의한 자원 pool제, 교수 pool제, 실험실습 공동 센터 등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 체제를 통하여 교육 개방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넷째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개방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대학 체제의 개방화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는 점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개방의식을 갖추어야만 충격을 완화 할 수 있으며, 또한 무조건적인 배타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은 교육 개방을 전담할 부서와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현재의 국제 협력 관계를 진단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장기 대책은 교육 개방시의 단일 대학의 위상과 각국간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협력 유형 및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대학교육의 개혁에 못지않게 정부나 사회 차원에서 UR 교육 개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의 과제로는 산업 구조를 조정함과 아울러 교육 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교육 구조의 조정은 각 단계별 교육간의 수평적 통합과 시기별, 위계별 수직적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개방에 대비한 정부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때에 따라서 필요한 강화를 통해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은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적극적인 기회 창출을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학 체제를 개방 체제화 하여야 하고 교육 과정(Process of education)을 유연성 있게 하여야 하며 대학 구성원의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제 경쟁의 테두리를 탈피하여 국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은 문화적 외교(cultural diplomacy)이다. 따라서 교육 개방의 파급효과는 문화적으로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내부적으로는 근시안적 입시 경쟁과 일류 자만 성향 그리고 특정 대학 모방성향, 전공 이기주의 성향, 교수 분파 성향등의 의식적 고착화 현상이 내제되어 있다. 체제 구조면에서도 확일성, 경직성, 비자율성, 배타성등의 특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취약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 인구의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동도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럴 때 우리는 세계적 교육 산업시대를 맞고 있고 교육 무한경쟁시대와 교육 소비자시대를 맞고 있는 형편이다.

### III. 개방 시대의 각국 대학 연구

21세기는 국제 경쟁 시대가 될 것이며, 현재의 상품 시대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인간 경쟁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회 학자인 에찌오니(Etizioni)도 대학에서 인재 양성에 실패한 국가는 '새로운 저 개발 국가(new underdeveloping country)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간 국내 경쟁에만 익숙했고, 대학의 경우에는 국내 경쟁 중에서도 양적 경쟁(quantitative competition)에만 치중해 온게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UR에 의한 고등교육개방을 눈앞에 두고 2000년을 기점으로 고등교육 인구의 감소현상을 탈피할 길이 없으며, 개방 시대의 대학의 사명도 자연 UR형 대학의 기능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 대학 경영의 합리화와 교육의 질향상의 과제가 대학 구성원들의 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 1. UR의식과 UR형 대학 소개

일반적으로 교육 개방의 영역은 국내에서 외국소재 방송, 통신교육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경간 공급의 개방,' 외국인의 유학과 내국인의 유학제한이 폐지되는 '소비자 이동의 개방,' 외국 교육기관이 직접 국내에 진출하여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상업적 주재의 개방,'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도록 허용하는 '노동력 이동의 개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UR에 대비한 한국 대학의 기능도 자연 UR의식에 입각한 대학의 생존전략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

대학의 기능적 특성도 '고객중심대학'(client-centered college)으로 전환되어 다양성과 특수성, 전문성과 개방성에 의한 '질과 특성화'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기존의 체제, 기존의 사고, 기존의 프로그램 등을 고수하는 경직된 체제하에서는 대학의 존립사체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고 대학 나름대로 경쟁시대에 대비한 생존전략 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전 지역사회의 과제라 볼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대학의 특성이 학생 고객 학사운영체제로 변모하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문화적 접변화전략에 따른 자국교육우선정책,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 다국화, 다양화의 '다양화전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의식과 UR형 대학의 특성은 '앤드로버시티'(Andraversity)와 '텔레버시티'(Televersity) 그리고 UR형 특성을 전제로 한 '글로벌 캠퍼스'(global campus)전략을 세우고 있다. 앤드로버시티는 종래의 '유니버시티'나 '멀티버시티'의 전통적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연령제한이나 국적제한 또는 보수적 학문체제에서 탈피하려는 특성의 대학을 의미한다. 이러한 '앤드로버시티'는 UR형 대학의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학생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전통적 교수방법보다는 새로운 교육공학기법을 활성화시키며 캠퍼스중심의 학사운영에서 off-campus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게 특성이다. 예컨대 UCLA나 New York대학 그리고 버클리 대학등이 전통적인 정규학생들보다 비정규적 성인학습자가 많아지고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합 운영하며 소위 지역연구라 할 수 있는 다문화, 특정국가연구 등의 활성화등이 많아지는 것도 모두 개방시대대학의 기능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통신매체를 활용한 텔레버시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 할 수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통신매체중심교육, 자격중심교육, 이동교육 그리고 다중매체 학습방법등에 의한 UR형 대학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교육 산업화의 현상은 물론 문화, 다언어, 다인종, 다국가의 글로벌 캠퍼스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UR형 대학을 위한 장기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 2. 개방 시대의 각국 대학 연구

세계 각국은 21세기의 전환기를 맞아 교육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세계화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단순한 내국적 경쟁이 아니라 세계화된 경쟁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세계가 무국경 무한정 교육경쟁에 의존하는 교육산업화의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 이런 국제경쟁시대가 도래한 지금 개방 시대의 각국의

한번 살펴보자.

## 1. 개방 시대의 대학-

### 1) 일본

일본은 개방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이다.

일본은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 초등교육은 물론 고등 교육 부문에 이르기까지 이미 최종 양허표를 제시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정규 교육의 양허표 뿐만 아니라 특수 부문 교육이나 성인 교육 부문도 개방을 허용할 상태이다.

그러나 모든 공식 교육 기관은 학교 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에 의해서만 설립 가능 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 학교 법인인이 설립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교육 개방 정책은 언바운드 정책(unbound policy)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상태 유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슬기로운 정책 때문에 198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미국 대학 분교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과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은 양국간에 놓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 교육 및 문화의 교류 확대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 후 양국간에 고등교육 부문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 진 것이다.

1985년 이후 미국의 41개 대학이 일본에 분교 형태로 진출한 이후 1991년 5개교, 1992년 2개교, 1993년 6개교, 1994년 1개교가 폐교되어 현재는 27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일본에 진출해 있는 미국 대학들은 토지는 일본의 지방 정부에서 제공 받고, 시설 설비등은 미국 대학들이 투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들 진출 대학 들은 대체로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ESL)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어문학, 국제 이해 교육, 경영, 예체능 분야의 학부 과정 또는 극히 일부에서는 석사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일본이 개방을 하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는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비영리법인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취업등에 득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대학, 예컨대 동경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동북대 등은 미국의 우수 대학들보다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근래에는 미국의 우수 대학들인 MIT, 스탠포드, 시카고 대학등 이 공동 연구소를 개설하거나 경영학 석사과정 개설등 분교가 아닌 프로 그램 형태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히로시마 대학에도 미국 우수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개방 전략중의 하나는 외국 학생을 일본에 유치할 뿐만 아니라 외국  
 의 우수대학에 역으로 진출을 확대시키고 있는 점이다. 일본은 2000년 까지 외국  
 유학생 10만명을 유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1994년으로 볼 때 약 5만 3000천 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중이다.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오스트레일  
 리아 협정이나 미-일 교류 협정등과 같은 외국 정부와의 교류 협정을 추진하고 있  
 다. 외국의 우수 대학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활발한데 주로 미국의 하바드, MIT, 버  
 클리, 스탠포드등과 같은 우수 대학에 연구비를 출자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  
 다. 물론 외국에 직접 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매입하여 일본대학내의 학생  
 들에게 외국 현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일본학을 외국인들에게 수강토록 하기도  
 한다. 주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개방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자국교육을 보호하면서 외국에 역  
 진출하여 오히려 일본 교육과 일본 문화를 이식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 2) 미국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그 숫자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고등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이다. 이점에서 미국은 '대학의 나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1994년 현  
 재 미국에는 3,640개의 대학이 있고 교수 수만해도 49만 6천명, 4년제 대학 학생수  
 가 837만 4천명, 2년제 대학 학생수가 510만명으로 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  
 의 규모가 1350만명 정도이다. 이러한 방대한 고등교육 규모 때문에 미국 대학들  
 도 각 주를 중심으로 개방 시대의 대학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 대학들은 1980년대 초 '국가적 위기' 보고서(A Nation at risk)에 의해 교육  
 개혁이 시작된 이후 교육의 질 향상과 재정확보, 경영 합리화등에 관심을 가져 왔  
 다. 특히 미국 대학들은 다양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방위  
 산업과 관련된 첨단 분야와 경영 그리고 이공 계열등에 집중 투자를 해왔다. 그러  
 나 누적된 편중 지원의 영향으로 인문 사회계 일부 영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  
 이다.

현재 미국 대학들이 도전을 받고 있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과제들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감소 추세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등록률을 신장  
 시킬 것인가? 고등 교육의 질을 어떻게 재고 시킬 것인가?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여  
 이들 교수들에게 어떻게 교육적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과 설비를 제대  
 호 확보하고 교육의 지원 시설을 확충 할 것인가? 등으로서 개방 시대의 고등 교육  
 의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특히 개방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고등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과제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교육 체제를 학생 중심(student focused)으로 전환하고 교수와 학생 그리고 커리큘럼등을 보다 국제화 시키며 대학원 교육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R에 의한 고등 교육개방에 관련해서도 각 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실정이지만 일반적으로 개방에 대한 양허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회 교육에 대해서만 개방하려는 추세일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주는 미국 교육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러한 미국 고등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 대학들의 재정과 관련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종래에는 재정보호에 더 관심을 가져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더 치중하고 있는 점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대학 체제를 전산화 하여 효율적 경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점이다. 공·사립 대학을 비교해 볼 때 사립 대학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립의 경우에는 비교적 괜찮은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기인된 고등 교육의 현상들은 학생 장학금과 학생 지원의 축소, 교수와 직원의 감소, 프로그램의 축소, 그리고 고령의 교수와 여성 교수들의 고용 증대 현상이다. 개방 시대의 미국대학들은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강화, 그리고 교수 개발프로그램의 확충, 컴퓨터 활용의 증대, 그리고 3R교육과 기초 교육등의 재활성화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또 하나 특이한 변화중의 하나는 캠퍼스 환경을 교육적 환경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점이다.

외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미국은 자체 학생 인구의 감소 현상 때문에 앞으로 개방 시대에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의존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로 하여 외국에 진출하려는 경향이 활성화되고 주 정부의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산학연 협동형태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 매체를 활용한 국제전자 캠퍼스(electronic campus)를 보편화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 대학의 성공도 경영적 사고 때문이요, 실패의 원인도 경영적 사고라는 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적 경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3) 유럽 공동체 (EU)

UR에 의한 교육 시장 개방은 학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적 교육시장과 사설 학원등을 포함하는 비형식적 교육 시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개방은 형식적 교육의 개방과 비형식적 교육의 개방을 다 포괄하는 영역이다. 사실 교육 개방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다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교육 시장 개방은 일반시장의 개방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통해 국내에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상업적 주체의 개방'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 인력이 국내에 유입되는 '인력 이동의 개방' 그리고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상호 유학이 자유화 되는 '인력 이동의 개방'이 있으며 인력이동이나 주체 형태가 아닌 통신 교육 등에 의한 '국경간 공급의 자유' 형태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예상되는 진출을 놓고 각국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공동체(EC)도 UR에 의한 교육 개방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수립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EU는 교육 개방이 될 경우,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 개방에 영향을 미칠 국가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EU는 초·중등 교육, 고등 교육 및 사회 교육 등 전 교육 부분을 개방하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으나 개방 자체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다.

EU에 가입된 자체 조직내에 국가간 교류도 커다란 과제이기 때문이다.

EU국가들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개방하면서도 국가에 따라서 국적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거나 교육 기관 설립등에 있어서 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초등 교육의 경우, 영국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태리는 국적요건을 요구 하고 있다. 중등 교육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 혹은 국적 요건을 요구하는 프랑스가 비교적 엄격한 편에 속한다. 프랑스는 EU역외 국가의 교육 기관 설립 및 교육 행위는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개방에 관련해서는 영국과 이태리의 경우, 사립 대학 설립 수요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국적 요건을 요구 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교수의 경우 국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개방과 마찬가지로 역외 국가의 교육기관 설립이나 교육 행위에 대한 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EU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개방은 허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 장치를 하여 자국 교육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는 자국어 보호정책과 함께 외국 기관의 진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려는 경향이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경향은 교육 개방은 하되 EU국가간의 역내 개방(域內開放)을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좋은 예가 EU회원 국가간의 학생, 교수 교류와 교육 교류 프로 그램인 'ERASMUS'프로 그램이다. 이 프로 그램을 통해 EU국가간의 언어적 장벽과 문화, 교육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교육 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부터는 Socirates프로 그램과 레오나르도 다빈치프로그램 등을 새로 개발하여 EU국가간의 교육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개방시대의 대학을 논의 할 때 EU, 미국, 일본의 3대 개방의 지주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데 그 이유는 EU가 교육적으로는 미국, 일본의 대체교육의 지역일뿐 만 아니라, 문화 경제적으로는 3대 공역권(空域圈)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의 문은 경제 이전에 교육에 의해서만 완전히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 IV. 대학 종합 평가 인정제에 관한 소개 및 분석

##### 1. 대학 평가의 시대적 의미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학의 운영전반을 분석 평가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대학의 책무성 향상과 대학의 자율성 신장 그리고 대학간 협동을 강화 촉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모든 대학이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1세기는 '교육산업사회'로서 교육적으로도 국제간의 무한경쟁사회가 될 것이며 학습자들 또한 대학교육의 질과 시설설비 그리고 교수등의 여건에 따라 스스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학습권의 시대, 즉 '학생소비자'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대학들의 국제지표상으로 염려될 만큼 열악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제인정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 164개 대학에서 신규 채용된 교수 수만도 2,300여명에 이르고 재정투자액도 수백억원을 넘는다는 사실과 교육 과정의 개편을 비롯한 대학 내부의 개혁등의 사례를 볼 때 대학 종합 평가인정제의 목표는 이미 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교치로 견주어 볼 때 '세계지향대학'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서울대등 7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이들 7개 대학이 시설 여건 등과 교수확보율 등에 있어서 비록 국내기준에서는 최상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의 여건과 비교하면 이들 대학들의 현실은 교수대 학생비의 경우 약 1/2-1/5정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2-1/11, 도서확보율이나 전산화 정도에서는 1/1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는 더욱 열악하여 선진국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에 비해 적게는 1/20에 불과하고 소위 대학의 SOFTWARE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구 등의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극히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이라 할 지라도 평가 인정 그 자체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평가 인정의 사회적 의미를 재음미하고 대학국제경쟁시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세계 대학'의 목표를 정립할 의무감을 가질 시점이라 생각한다.

##### 2. 대학 종합 평가제의 목적과 사회에 미치는 의미

대학 종합 평가제의 목적은 대학 교육의 수월성 추구하고 질 개선, 대학의 책무성 수행,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문의 자유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경쟁 시대의 대학은 결국 수월성(Excellence),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율성(Autonomy)정도에 따라 경쟁 능력이 결정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3요소의 수준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적절한가, 즉 사회와 관련된 교육 요구의 적합성, 그리고 어떻게 목적과 과정, 그리고 내용에 있어 상호 책임성을 지니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협력 체계화되어 있는지의 적합성(relevance), 책임성(responsibility), 그리고 피드백되고 점검되는지의 점검 활동(review)등이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의해 점검될 때 국제 경쟁시대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다. 이점이 대학종합평가제의 커다란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평가는 여러나라에서 대학 사회의 자기 통제적 협력 모델로 정착되어 왔으며, 대학간 협력이나 대학 교육의 질 그리고 운영합리화를 보장하기 위한 자기 통제, 또는 상호 부조의 한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대학간 협력 기구인 대학 교육 협의회에서 주도하는 자생적이고 외부 통제를 배제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대학 종합 평가 인정제는 1994년 부터 실시하여 7년 주기로 200년에 전국의 4년제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는 국제 경쟁 시대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본 환경 교육과 교육의 질이 확립되리라 기대된다.

대학평가인정제란 대학의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목적 성취와 질적 균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국제 경쟁 시대에 대비한 질적 균등의 최소 기준을 확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 평가 인정제는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대학 목표, 교육 내용, 방법의 적절성, 교육·연구·봉사 활동의 질과 산출, 학생, 교직원, 시설 및 행·재정에 관한 제 기준을 개별 대학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분석한 후 판정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판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학 스스로 발전의지와 개선노력을 도모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생성과 소멸의 지난 과정과는 달리 사회 스스로의 재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재생산 과정에는 말할 나위 없이 개혁과 창조 의의가 내포되어 있다. 경쟁 시대, 특히 국제 경쟁 시대에서 존립의 관건은 자기 재생산 과정에서의 개혁과 수월성 제고라 할 수 있다.

평가는 자기 점검의 시발점임과 동시에 자기 개혁의 기점과 관련된다.

특히 UR등의 개방화에 따른 문화 개방, 제도 개방, 의식 개방등에 대비하지 않는 한 대학의 앞날은 단순하고 평탄한 여정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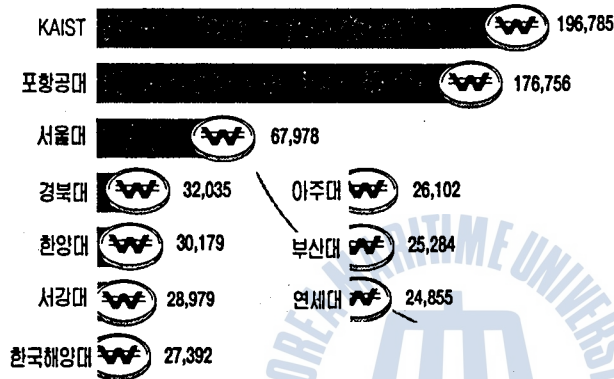


2) 교수 1인당 연구비로 본 경쟁력

대학이 자체 투자하거나 외부에서 수주한 총 연구비의 경우 전체 대학의 평균 교수당 연구비는 1천 2백 72만원이었다. 명목상 95년(1천2백 19만원)보다 4.3%가량 늘었지만 96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하면 실질 연구비는 줄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 1인당 연구비로 볼 때에 본교의 경우 전국 상위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6년 본교의 교수 1인당 연구비는 27,392,000원으로 국내 7위에 지목되었다.

96년 교수 1인당 연구비 상위10개 대학

(단위:천원)



3). 도서관 장서수 및 도서관 PC 보유 대수

대학에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 여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의 하나인 도서관의 장서수와 도서를 확보하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PC보유도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본교는 열세를 면치 못했다. 본교의 도서관 장서수는 99,873권으로 조사대상인 127개교 중에서 94위를 차지하였다.

94위 이하의 대학들이 대부분 설립 연도 20년 미만의 대학이라는 점을 볼 때 이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산대가 689,414권, 동아대가 580,649권으로 비교 대상 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 PC보유 대수 면에서도 19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14대를 보유해 조사대상 104개 학교중 60위를 차지해 부산대 33대, 동아대 29대와 비교할 때 절반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사실로도 분석해 볼 때 도서관 확장, 장서확보등 도서관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 도서관 장서수

순위	대 학 명	장서량 권수	순위	대 학 명	장서량 권수	순위	대 학 명	장서량 권수
1	연세대학교	1,543,194	39	고려대학교	389,969	77	한양대학교	127,783
2	조선대학교	1,194,124	40	경희대학교	381,929	78	고려대학교	124,721
3	성신대학교	1,020,643	41	중앙대학교	363,139	79	한양대학교	123,090
4	한양대학교	997,044	42	한양대학교	359,523	80	한양대학교	121,589
5	한양대학교	969,429	43	한양대학교	351,504	81	한양대학교	119,899
6	한양대학교	899,135	44	한양대학교	351,087	82	한양대학교	117,779
7	한양대학교	739,984	45	한양대학교	347,721	83	한양대학교	116,280
8	한양대학교	719,695	46	한양대학교	347,584	84	한양대학교	116,064
9	한양대학교	698,114	47	한양대학교	343,134	85	한양대학교	109,487
10	한양대학교	694,361	48	한양대학교	333,821	86	한양대학교	109,111
11	한양대학교	679,145	49	한양대학교	329,135	87	한양대학교	108,100
12	한양대학교	594,011	50	한양대학교	305,546	88	한양대학교	108,229
13	한양대학교	569,649	51	한양대학교	302,221	89	한양대학교	104,219
14	한양대학교	379,736	52	한양대학교	287,789	90	한양대학교	104,023
15	한양대학교	344,696	53	한양대학교	285,287	91	한양대학교	103,211
16	한양대학교	332,227	54	한양대학교	280,000	92	한양대학교	101,369
17	한양대학교	314,714	55	한양대학교	284,261	93	한양대학교	100,000
18	한양대학교	317,821	56	한양대학교	289,297	94	한양대학교	99,273
19	한양대학교	309,771	57	한양대학교	288,173	95	한양대학교	95,999
20	한양대학교	308,343	58	한양대학교	283,209	96	한양대학교	95,416
21	한양대학교	308,292	59	한양대학교	282,732	97	한양대학교	90,499
22	한양대학교	291,121	60	한양대학교	281,299	98	한양대학교	89,299
23	한양대학교	279,028	61	한양대학교	276,299	99	한양대학교	87,929
24	한양대학교	269,134	62	한양대학교	274,229	100	한양대학교	82,429
25	한양대학교	249,414	63	한양대학교	273,229	101	한양대학교	80,799
26	한양대학교	246,942	64	한양대학교	271,299	102	한양대학교	74,299
27	한양대학교	246,449	65	한양대학교	264,191	103	한양대학교	73,229
28	한양대학교	233,227	66	한양대학교	261,899	104	한양대학교	72,229
29	한양대학교	202,227	67	한양대학교	259,229	105	한양대학교	69,229
30	한양대학교	179,028	68	한양대학교	248,021	106	한양대학교	65,021
31	한양대학교	162,221	69	한양대학교	241,899	107	한양대학교	59,221
32	한양대학교	160,600	70	한양대학교	241,400	108	한양대학교	57,289
33	한양대학교	173,643	71	한양대학교	238,451	109	한양대학교	55,274
34	한양대학교	141,271	72	한양대학교	236,492	110	한양대학교	54,271
35	한양대학교	133,866	73	한양대학교	235,243	111	한양대학교	51,484
36	한양대학교	109,902	74	한양대학교	231,949	112	한양대학교	49,489
37	한양대학교	107,897	75	한양대학교	229,227	113	한양대학교	48,479
38	한양대학교	104,489	76	한양대학교	229,289	114	한양대학교	46,732
115	한양대학교	43,432	125	한양대학교	29,116			
116	한양대학교	42,116	126	한양대학교	29,234			
117	한양대학교	40,107	127	한양대학교	28,983			
118	한양대학교	38,000	128	한양대학교	24,712			
119	한양대학교	35,000	129	한양대학교	23,813			
120	한양대학교	32,227						
121	한양대학교	30,227						
122	한양대학교	30,229						

도서관 PC 보유 대수

순위	대 학 명	PC 보유 대수	순위	대 학 명	PC 보유 대수	순위	대 학 명	PC 보유 대수
1	한양대학교	149	29	한양대학교	22	61	한양대학교	7
2	한양대학교	117	30	한양대학교	20	62	한양대학교	6
3	한양대학교	110	41	한양대학교	21	63	한양대학교	6
4	한양대학교	89	42	한양대학교	21	64	한양대학교	6
5	한양대학교	86	43	한양대학교	21	65	한양대학교	6
6	한양대학교	79	44	한양대학교	21	66	한양대학교	6
7	한양대학교	71	45	한양대학교	21	67	한양대학교	6
8	한양대학교	67	46	한양대학교	21	68	한양대학교	6
9	한양대학교	66	47	한양대학교	20	69	한양대학교	6
10	한양대학교	59	48	한양대학교	20	70	한양대학교	5
11	한양대학교	53	49	한양대학교	18	71	한양대학교	5
12	한양대학교	50	50	한양대학교	18	72	한양대학교	5
13	한양대학교	48	51	한양대학교	18	73	한양대학교	4
14	한양대학교	43	52	한양대학교	18	74	한양대학교	4
15	한양대학교	42	53	한양대학교	17	75	한양대학교	3
16	한양대학교	39	54	한양대학교	17	76	한양대학교	3
17	한양대학교	38	55	한양대학교	17	77	한양대학교	3
18	한양대학교	35	56	한양대학교	16	78	한양대학교	3
19	한양대학교	35	57	한양대학교	15	79	한양대학교	3
20	한양대학교	34	58	한양대학교	15	80	한양대학교	3
21	한양대학교	34	59	한양대학교	15	81	한양대학교	3
22	한양대학교	33	60	한양대학교	14	82	한양대학교	2
23	한양대학교	32	61	한양대학교	14	83	한양대학교	2
24	한양대학교	32	62	한양대학교	14	84	한양대학교	2
25	한양대학교	32	63	한양대학교	14	85	한양대학교	2
26	한양대학교	31	64	한양대학교	13			
27	한양대학교	30	65	한양대학교	13			
28	한양대학교	30	66	한양대학교	12			
29	한양대학교	30	67	한양대학교	12			
30	한양대학교	30	68	한양대학교	12			
31	한양대학교	30	69	한양대학교	12			
32	한양대학교	30	70	한양대학교	11			
33	한양대학교	30	71	한양대학교	11			
34	한양대학교	30	72	한양대학교	11			
35	한양대학교	30	73	한양대학교	10			
36	한양대학교	30	74	한양대학교	10			
37	한양대학교	30	75	한양대학교	10			
38	한양대학교	30	76	한양대학교	10			
39	한양대학교	30	77	한양대학교	10			
40	한양대학교	30	78	한양대학교	10			
41	한양대학교	30	79	한양대학교	10			
42	한양대학교	30	80	한양대학교	10			
43	한양대학교	30	81	한양대학교	10			
44	한양대학교	30	82	한양대학교	10			
45	한양대학교	30	83	한양대학교	10			
46	한양대학교	30	84	한양대학교	10			
47	한양대학교	30	85	한양대학교	10			
48	한양대학교	30	86	한양대학교	10			
49	한양대학교	30	87	한양대학교	10			
50	한양대학교	30	88	한양대학교	10			
51	한양대학교	30	89	한양대학교	10			
52	한양대학교	30	90	한양대학교	10			
53	한양대학교	30	91	한양대학교	10			
54	한양대학교	30	92	한양대학교	10			
55	한양대학교	30	93	한양대학교	10			
56	한양대학교	30	94	한양대학교	10			
57	한양대학교	30	95	한양대학교	10			
58	한양대학교	30	96	한양대학교	10			
59	한양대학교	30	97	한양대학교	10			
60	한양대학교	30	98	한양대학교	10			
61	한양대학교	30	99	한양대학교	10			
62	한양대학교	30	100	한양대학교	10			

4). 대학 교수 연구 논문 수

1993년부터1995년까지 3년의 전국 100개 대학의 교수 연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수 1인당 국내 논문 발표수는 평균 1.93편으로 나타났다.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까지 포함한 결과지만 2편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국내 100개 대학중 포항 공대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교수 1인당 연구 논문 발표수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본교는 대학교수 1인당 논문수에서는 전임교수수나 규모로 볼 때 열세를 면치 못했지만 본교는 국외 기재 인문·사회계열 교수 1인당 논문수에서는 1인당 0.18건으로 지방 대학중 유일하게 상위 10개 대학 중 7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 계열 교수 1인당 논문수 상위 10개 대학(93~95년 합계)

국 내					국 외				
순위	대 학 명	전임교수수	논문총수	1인당	순위	대 학 명	전임교수수	논문총수	1인당
1	고려대학교	701	1,824.22	2.60	1	고려대학교	840	299.48	0.34
2	이화여자대학교	555	1,408.07	2.54	2	울산대학교	291	80.82	0.28
3	서울대학교	786	1,857.00	2.36	3	중앙대학교	679	166.93	0.25
4	연세대학교	286	630.96	2.21	4	서울대학교	786	192.00	0.24
5	울산대학교	291	364.68	1.25	5	한양대학교	701	154.90	0.22
6	울산대학교	310	696.80	2.28	6	울산대학교	310	59.50	0.19
7	아주대학교	244	530.08	2.17	7	국민대학교	286	50.86	0.18
8	고려대학교	840	1,751.74	2.09	8	한양대학교	124	22.00	0.18
9	중앙대학교	679	1,388.89	2.05	9	서울대학교	434	10.05	0.16
10	한양대학교	510	914.18	1.79	10	이화여자대학교	555	90.02	0.16

또한 본교의 해외 자매대학수는 95년 2학기 기준으로 12개교로 조사 대상 104개교 기준으로 성균관대학교와 더불어 35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대학의 학생의 기숙사 수용 능력이 7.9%로 낮은 데 비해 본교는 26%로 국내 5위권 이내의 우수 대학으로 지목되었으며, 재정·경영 면에서도 고려대와 함께 14위를 차지해 비교적 건실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교의 장학금 수혜 현황은 수혜자수가 총 2744명으로, 수혜자 비율이 34.3%로 나타나 111개 대학 평균 29.4%(96년 기준)을 넘었으며, 적은 금액을 많은 학생에게 고루 나누어 주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참고로 본교의 95학년도 장학금 총액은 14억 3378만 8500원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34개 대학중 본교의 분야별 평가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나마 분석해 보았다. 본교는 1992년 3월 종합 대학으로서 승격하여 체제 개편을 하였다.

그리고 96년 기준으로 2개 대학원, 3개 단과 대학, 7개 학부, 13개 학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 해본 본교의 경쟁력은 일부 분야에서는 회의적인 수준이었지만 많은 가능성도 엿볼수 있었다.

UR 시대를 맞이해 본교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학 경쟁력 확보이다.

더 이상의 양적 규모 늘리기보다는 이젠 내실을 다지고, 또한 이미 타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한 학부나 학과는 통·폐합등으로 자체 정리하고 해운,정보통신등 특성화, 전문화 분야를 주축으로 한 세계적인 해양대학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교의 대학 적정 인원이 8000명선이란 통계 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양적 규모에 따른 산술 결과일 뿐이지, 결코 본교의 경쟁력 높이기와는 무관하다.

## v. 21세기와 '고객중심대학' 과 결언

우리는 지금 세기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21세기는 단순한 상품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경쟁시대가 될 것이다. '교육받은 인간'과 '경쟁력있는 인력'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게 되는 교육경쟁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국내경쟁 특히 양적 경쟁에만 익숙해 온 우리 나라 대학들도 이제 세계속의 현 위상이 어디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미래의 눈'을 가진 대학 교육에 의해서만 한 국가의 21세기는 주도될 것이며 대학에서 인재양성에 실패한 국가는 신저개발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우리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는 때이기도 하다. 21세기의 대학교육의 방향은 통제에서 자율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획일성으로부터 다양성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제도에서 비제도적 특성으로, 교수중심으로 소비자인 학생중심사고로의 변모 또한 불가피하다.

특히 21세기의 대학은 '고객중심대학'(client-centered university)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므로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던 대학행정가 중심체제나 교수 중심체제가 아닌 학생중심체제로 변화할 것을 감안할 때 특정 대학 모방현상에서 탈피하여 고객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다. 또한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은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대비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 개방은 단순히 '제도적 개방'이 아니다.

이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와 유관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현상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본격적인 개방 시대에 대비해 각 대학들은 교육 및 제도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지금은 경쟁력, 재정 확보 등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대학, 갈등과 선택 text by Henry Rosovsky, 삼성경제연구소1996
- 2) 대학, 없애야 우리가 산다. 이항구 저, 한겨레 신문사 1995
- 3) 大學 改革論 김난주 저, 한서원
- 4) 大學 改革 110의 事例 と是言 Niju^ichi-seikino
- 5) 학생소비자시대 개방시대의 대학 이현청 저, 한양대학교출판원1996
- 6) which university, Esquire지1996.11
- 7) The Role of Korean Higher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oward a Competitive and Cooperative Asia-pacific age 아·태고등교육협력회의 논문  
등 다수

